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

이기쁨 · 지상훈*

2020년 8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모와 구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고용 조정이 더 컸으며, 비정규직 고용 구성도 2019년보다 악화되었다.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53시간 이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은 소폭 상승했다. 비정규직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특징이며, 비정규직의 임금은 증가하는 집단과 감소하는 집단이 혼재되어 세부 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한다. 통계청은 2003년부터 매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2007~16년에는 3월과 8월에 실시되었으며, 2017년 이후로는 매년 8월에 한 차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9년 8월과 비교하여 2020년 8월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세부 근로형태의 양적인 변화와 함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한다.

2020년 8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시기이다. 2019년 통계청에서 국제중사상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과거 경황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면서 2019년 비정규직의 규모 변화는 이전 시기와 증감으로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2019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된 2020년 조사에서는 병행조사의 효과는 사라지

* 이기쁨=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ppeum@kli.re.kr), 지상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sanghoonjee@kli.re.kr).

므로, 이번 조사를 이용한 분석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2020년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징

1.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구성과 정의

통계청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의한다.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다. 한편 근로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도 함께 고려하여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비정규직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분석한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근로형태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통계청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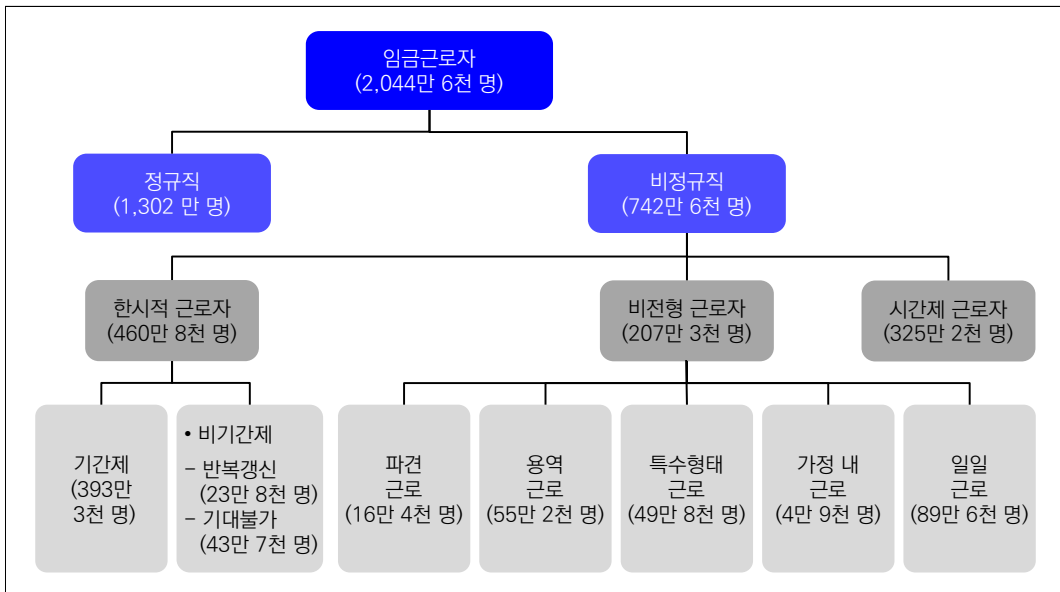
		용어 설명
비정규직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기간제	- 반복갱신: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 기대불가: 계약 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	용역 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특수형태 근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함.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
	가정 내 근로	재택근무, 가내 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
	일일(단기) 근로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자료: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지침서」.

[그림 1]은 2020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를 나타낸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742만 6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이다. 이 중 한시적 근로자가 460만 8천 명(임금근로자 중 22.5%), 비전형 근로자는 207만 3천 명(10.1%), 시간제 근로자는 325만 2천 명(15.9%)이다. 비정규직의 각 근로형태는 중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제이면서 기간제 근로자일 수 있다. 기간제이면서 파견직이고 동시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도 가능하다. 2020년 8월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중복 현황을 보면, 한시적 근로자이면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는 160만 5천 명, 한시적이면서 비전형인 경우는 53만 4천 명, 시간제이면서 비전형인 경우는 47만 5천 명이다.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0만 6천 명이다.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비정규직은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고용 감소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더 급격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구성 변화는 경기적 요인으로 변화한 부분과 경기 외적인 요인으로 변화한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가 악화된 영향으로 고용이 변동한 부분은 반복갱신에서의 고용 감소가 대표적이다. 경기 외적인 요인은 정부 공공일자리 시행이다. 정부 고용정책의 결과로 기간제가 증가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특성 위주로 살펴보겠다.

[그림 1] 2020년 8월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구성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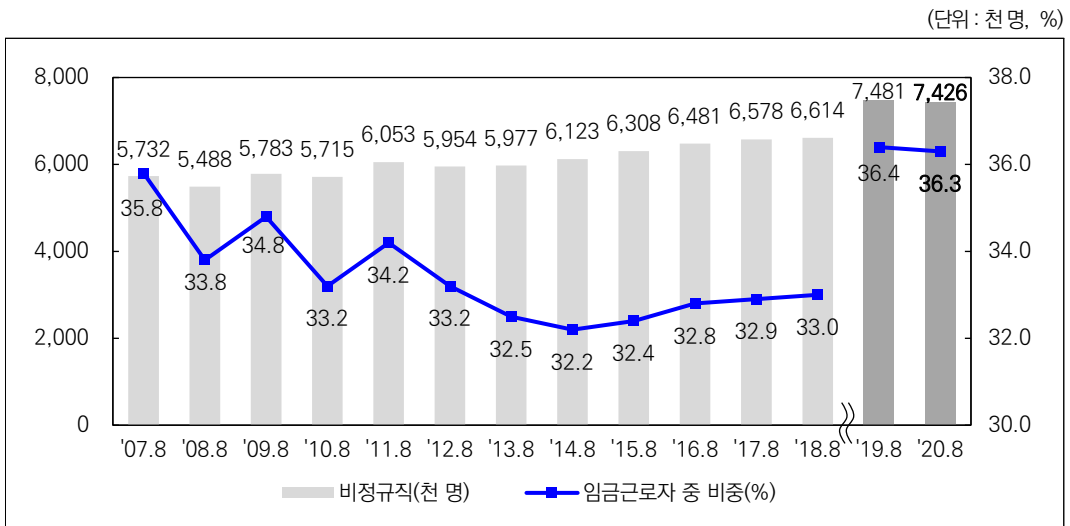


주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 간 중복 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년 8월.

2.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

2020년 3월부터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임금근로자 역시 3월 이후 감소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극심하게 위축되었고 노동시장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감소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과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취업자는 감소해도 임금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임금근로자도 감소하였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11만 3천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5만 8천 명, 비정규직은 5만 5천 명이 감소했다. 고용 증가율은 비정규직이 -0.7, 정규직은 -0.4로 고용 감소 속도는 비정규직이 더 빨랐다. 임금근로자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0.1%포인트 증가했고,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고용 변동은 대면서비스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임시·일용직 위주로 취업자 감소 규모가 컸던 2020년 8월 고용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고용은 숙박음식, 제조업, 교육, 사업시설관리지원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산업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 비정규직은 2019년보다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와 함께 보면 비정규직이면서 임시·일용직인 비정규 비상용에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비정규·임시직은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에서는 증가했지만, 교육, 숙박음식 등 그 외 산업에서 감소한 부분이 컸다.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정부 고용정책의 결과이다. 특히 65세 이상 보건·사회복지에서 10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림 2]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2〉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및 고용 증감

(단위: 천명, %, %p)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 창고	숙박 음식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	공공 행정	교육	보건 사회	예술· 스포츠	협회· 단체
2019	규모	669	851	706	217	765	281	866	373	630	978	195	246
	(비중)	(8.9)	(11.4)	(9.4)	(2.9)	(10.2)	(3.8)	(11.6)	(5.0)	(8.4)	(13.1)	(2.6)	(3.3)
2020	규모	601	859	722	231	694	256	824	413	588	1,128	182	241
	(비중)	(8.1)	(11.6)	(9.7)	(3.1)	(9.3)	(3.4)	(11.1)	(5.6)	(7.9)	(15.2)	(2.4)	(3.2)
증감	규모	-69	9	16	15	-71	-25	-42	40	-41	150	-14	-5
	(비중)	(-0.8)	(0.2)	(0.3)	(0.2)	(-0.9)	(-0.4)	(-0.5)	(0.6)	(-0.5)	(2.1)	(-0.2)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증가한 비정규직이다.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처럼 코로나19 확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이 제외된 비정규직은 2019년 8월보다 24만 6천 명 감소했고, 정규직은 7만 8천 명 감소했다. 정부 고용정책의 영향을 제외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고용 조정에서 차이가 더욱 커진다.

3. 한시적 근로 고용 구성이 크게 변화

〈표 3〉은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와 고용 증감을 나타낸다.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2019년 8월보다 감소했지만 근로형태별로 보면 고용이 증가한 근로형태도 있다. 한시적 근로가 전년보다 17만 7천 명 감소했고,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는 각각 2만 8천 명, 9만 7천 명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시간제 근로자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 고용 구성을 보면 한시적 근로자에서 변화가 컸다. 특히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의 반복 갱신에 의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반복갱신 근로자가 대폭 감소했다. 원래 비정규직 중 반복갱신 근로자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으나 2020년 8월 36만 9천 명이 감소하면서 반복갱신 규모는 23만 8천 명을 기록했다. 비기간제 중 사업주가 그만두기를 요구하거나, 현재 하는 업무의 종료, 묵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기대불가 근로자는 증가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13만 3천 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반복갱신 근로자 비중은 2019년 8.1%에서 4.9%포인트 하락한 3.2%에 불과하고, 기간제는 2.2%포인트 상승하여 비정규직 중 53.0%를 차지했다.

〈표 3〉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 및 증감

(단위: 천명, %, %p)

	규 모			비 중		
	2019. 8.	2020. 8.	증감	2019. 8.	2020. 8.	증감
비정규직	7,481	7,426	-55	100.0	100.0	-
① 한시적 근로	4,785	4,608	-177	64.0	62.1	-1.9
기간제	3,799	3,933	133	50.8	53.0	2.2
반복갱신	607	238	-369	8.1	3.2	-4.9
기대불가	379	437	58	5.1	5.9	0.8
② 비전형 근로	2,045	2,073	28	27.3	27.9	0.6
파견	182	164	-18	2.4	2.2	-0.2
용역	615	552	-63	8.2	7.4	-0.8
특수형태근로	528	498	-30	7.1	6.7	-0.4
가정 내 근로	46	49	3	0.6	0.7	0.1
일일근로	748	896	148	10.0	12.1	2.1
③ 시간제 근로	3,156	3,252	97	42.2	43.8	1.6

주: 1) 비중은 비정규직 중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와 증감은 유형 간 중복 원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4〉에는 한시적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 증감이 나타나 있다. 반복갱신 근로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업 등에서 감소했다. 이들 산업은 반복갱신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업이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산업이기도 하다. 〈표 5〉를 보면 감소한 반복갱신 근로자는 대부분이 상용직으로, 20~60대 초반 연령대에서 골고루 감소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 근로자,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기존 근로자로 본다면, 반복갱신은 신규 채용과 기존 근로자 모두에서 감소했다. 기존 근로자의 감소폭이 훨씬 큰데, 기존 근로자 중에서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 이상 근속해 온 근로자의 감소 규모가 특히 크다(18만 1천 명 감소). 사업체 규모별로도 10인 미만 소규모~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감소했다. 한편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는 숙박음식, 도소매, 건설업 위주로 증가했다. 20대 초반, 임시·일용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가 증가했는데, 8월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들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에서 크게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기간제 근로자는 65세 이상에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공공행정 기간제도 단순 노무를 하는 임시직 근로자로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로 신규 유입되었다. 한편 기간제는 숙박음식, 건설 등 일부 산업에서 감소하기도 했다. 근속기간별로 기간제 증감을 보면 근속기간

〈표 4〉 한시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및 고용 증감

(단위: 천 명)

	규모(2020. 8.)				증감(2019. 8. → 2020. 8.)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전 산업	4,608	3,933	238	437	-177	133	-369	58
제조	452	376	33	43	-63	8	-69	-2
건설	267	194	16	57	-102	-98	-19	15
도소매	333	243	29	61	-24	19	-59	16
운수·창고	156	136	10	10	5	22	-14	-2
숙박음식	285	150	27	109	-70	-70	-26	26
부동산업	134	120	5	9	2	20	-14	-4
전문과학	142	125	11	6	-11	-6	-8	2
사업서비스	574	531	19	25	-34	2	-41	5
공공행정	404	399	2	3	44	43	0	1
교육	408	381	14	13	-23	12	-19	-15
보건사회	953	895	41	17	147	184	-35	-2
협회·단체	126	93	9	23	-4	9	-14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 더 나눠서 살펴보면 근속기간이 6~12개월 미만인 기간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에서 증가한 반면, 6개월 미만 기간제는 숙박음식과 건설업에서 크게 감소했다.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숙박음식, 건설업 기간제 감소는 8월 기준 1~2개월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의 감소가 대부분이다. 기간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증가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숙박음식, 건설에서 감소한 부분과 정부 정책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서 증가한 부분이 구별된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고용 증가 영향이 더 커서 전체 기간제 고용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정리하면, 2020년 한시적 근로자는 경기적 요인으로 반복갱신이 크게 감소하고 기대불가가 증가했으며, 정책적 요인으로 기간제가 새롭게 유입된 것으로 요약된다.

일일(단기)근로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비전형 근로자는 2019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 비전형 근로 중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는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표 3 참고). 2019년 8월과 비교해 일일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전년보다 14만 8천 명 증가했는데, 전부 8월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새로 유입된 근로자이다. 비전형 근로의 세부 근로형태는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 분포가 전체 비정규직과는 조금 다르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일근로는 주로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일일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분포하는 건설업에서 9만

〈표 5〉 한시적 근로자 특성별 고용 증감

(단위: 천 명)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2019. 8.	2020. 8.	증감	2019. 8.	2020. 8.	증감	2019. 8.	2020. 8.	증감
연령별	20대	688	656	-32	120	42	-78	64	79	16
	30대	586	556	-30	136	46	-90	50	60	10
	40대	584	656	72	136	58	-79	79	71	-7
	50대	687	663	-24	127	62	-65	90	101	11
	60세 이상	1,207	1,364	157	79	31	-49	84	108	24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1,775	2,124	349	427	141	-287	2	0	-2
	임시직	1,704	1,768	64	169	91	-78	319	339	20
	일용직	320	41	-279	11	7	-4	58	98	41
근속 기간별	1년 미만	2,238	2,105	-133	156	52	-104	257	307	51
	1년 이상	1,561	1,828	267	451	186	-265	122	130	8
사업체 규모별	1~9인	1,445	1,327	-119	227	105	-122	260	321	61
	10~299인	2,011	2,241	230	338	119	-219	116	114	-2
	300인 이상	343	365	22	42	14	-27	3	2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4천 명이 증가한 것은 건설업계 자체의 고용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2월부터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6월 평균 4만 명 감소했던 건설업 취업자는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편 고용이 감소한 비전형 근로 중에서는 용역 근로자의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6만 3천 명 감소). 용역근로는 용역 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다. 용역근로는 근로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 시설관리지원임대업 단순노무직에서 많이 감소했고, 건설업에서도 감소했다. 근속기간이 1년 이 안 되는 근로자들이다. 파견근로자도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고용 감소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는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형태다. 예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특수형태근로는 금융보험업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도소매업이나 교육 등에도 일부 분포되어 있다. 특수형태근로는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부동산업, 교육에서, 근속기간별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기존 근로자에서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9만 7천 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고용계약을 할 때) 몇 시간 일할 것인지 정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시간제 근로의 변동에는 시간제 근로 자체를 움직이는 요인이 한쪽에서 작용하고, 다른 쪽에서는 근로형태가 중복되어 변화하는 영향이 함께 작용한다. 1절에서 언급한 대

〈표 6〉 2020년 8월 비전형 근로자 세부 근로형태의 산업별 분포

(단위: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협회· 단체	가구 내 고용
파견	1.8	8.0	9.8	3.4	0.4	5.0	53.7	0.0	9.4	2.8	0.0
용역	0.7	3.0	0.3	0.7	0.0	4.0	89.3	0.6	0.4	0.1	0.0
특고	1.3	0.1	19.6	0.7	40.8	2.2	4.5	10.0	0.8	8.2	0.0
가정 내	30.7	0.0	4.5	3.7	1.9	0.0	3.6	6.1	11.9	0.7	17.4
일일	4.7	60.8	3.7	8.3	0.3	0.5	7.5	0.2	0.6	4.5	1.1

주: 비전형 근로의 각 세부 형태를 100으로 할 때 산업별 고용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년 8월.

로 비정규직의 각 고용형태는 서로 중복이 가능한데, 시간제 근로에는 기간제 및 비전형 근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경우가 많아 기간제가 증가하면서 시간제도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고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의 특성 위주로 살펴보겠다. 통계청 보도자료에 실린 중복 제거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중복을 제거한 시간제 규모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특고 > 가정 내 > 파견 · 용역 > 일일 > 한시제 > 시간제 기준으로 중복이 제거되었다. 시간제는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증가해 2020년 8월 비정규직의 약 44%에 이른다.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도 매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전년보다 2만 명 증가했다.

[그림 4]를 보면 2020년 8월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 8월에 비해 보건 · 사회복지, 공공행정 그리고 도소매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의 증가가 가장 크다. 보건 · 사회복지, 공공행정에서 기간제가 크게 증가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다른 근로형태와의 중복이

〈표 7〉 비전형 근로자 세부 근로형태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2019. 8 → 202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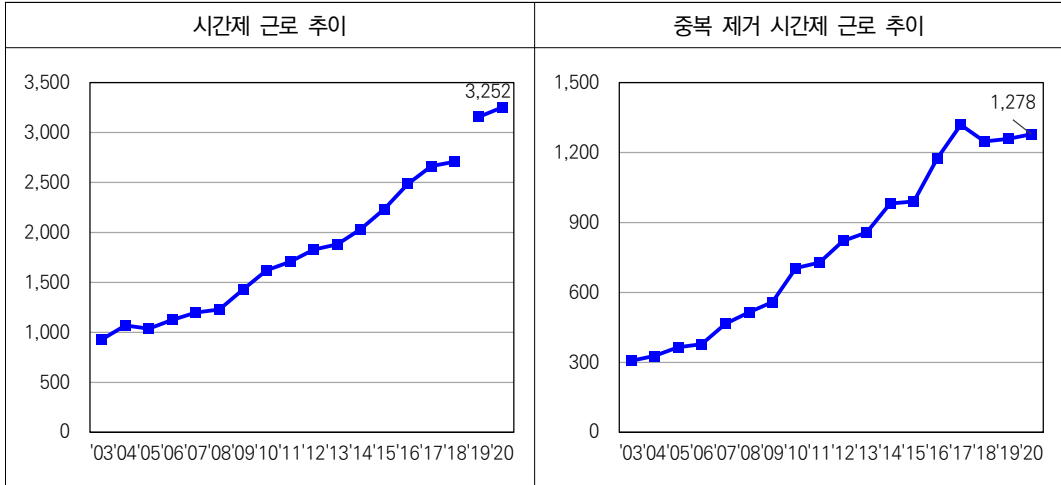
(단위: 천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협회· 단체	가구 내 고용
파견	-7	4	-10	0	0	0	9	-2	-3	2	0
용역	-7	-17	1	0	-1	-1	-24	1	-9	1	-1
특고	2	0	-18	1	-7	-15	-3	-11	1	6	-1
가정 내	-7	-1	-3	1	1	0	0	2	2	-2	6
일일	-4	94	3	23	-1	-2	11	-1	3	14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3] 시간제 근로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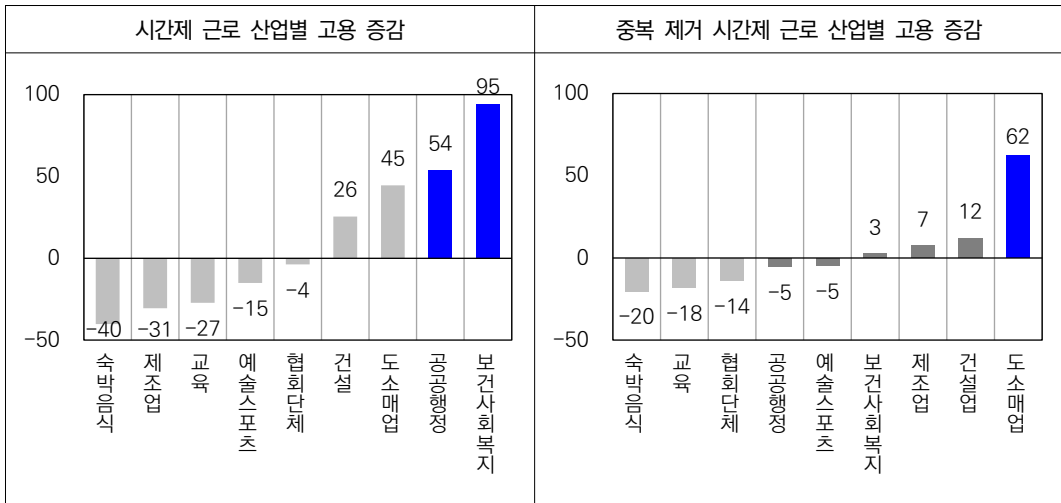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4] 시간제 근로자 산업별 증감(2019. 8. → 2020. 8.)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제거된 시간제 근로자는 도소매업에서 많이 증가했다(6만 2천 명 증가). 시간제에만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하거나 본인의 과실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 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경우가 전년보다 5만 5천 명 늘었다. 한편 당장 필요한 생활비 등 수입을 얻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로 볼 때 2020년 8월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규모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 구성도 2019년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했다. 정부 정책의 효과로 일부 산업에서는 기간제가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괜찮은 편인 반복갱신이 크게 감소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대불가가 증가했다. 반복갱신은 정규직 대비 상대 시간당 임금 수준이 2019년 79.8%, 2020년 72.9%로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은 편으로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기대불가는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다. 한편 파견, 용역, 특고는 감소했고, 비전형 근로 중 일일근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Ⅲ.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2020년은 코로나19로 소비시장이 침체됨과 동시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¹⁾ 시행됨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근로시간 감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8>을 통해 각 근로형태의 근로시간대별 근로자 분포의 변화를 보면 정규직은 53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15~39시간, 40~52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39시간 이하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정규직에 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을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대부분의 형태에서 4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비중의 감소는 특히 한시적 근로자 중 고용계약이 주기적으로 반복갱신되는 근로자와 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불가 근로자 그리고 일일근로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의 비중이 높았던 반복갱신과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큰 기대불가에서 모두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는 기대불가 근로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용역, 특수형태근로자 및 가정 내 근로자는 오히려 40~52시간 근로자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을 하는 만큼 수입이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근로시간을 늘

1) 2020년 1월 1일부로 50~300인 미만 사업체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 근로시간의 감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표 8〉 2020년 주당 근로시간대별 근로자 비중 및 2019년 대비 증감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의 증감

(단위 : %, %p, 시간, 전년동월대비)

근로형태	근로시간대별 근로자 비중 증감				평균 근로시간 증감
	1~14시간	15~39시간	40~52시간	53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4.9(0.4)	14.3(0.8)	75.3(0.2)	5.6(-1.3)	-0.7
정규직	0.0(0.0)	2.6(0.4)	91.3(1.2)	6.1(-1.7)	-0.6
비정규직	13.4(0.9)	34.8(1.4)	47.1(-1.7)	4.8(-0.5)	-0.9
한시적 근로	14.3(1.1)	24.0(1.7)	55.9(-2.0)	5.8(-0.7)	-1.2
기간제	15.3(0.2)	22.3(0.6)	57.1(-0.4)	5.3(-0.5)	-0.7
반복갱신	3.5(0.9)	20.6(2.7)	66.3(-3.4)	9.5(-0.4)	-0.8
기대불가	11.7(-0.1)	40.3(4.6)	39.9(-3.8)	8.0(-0.8)	-1.6
비전형 근로	4.4(0.2)	28.1(0.9)	60.4(-0.2)	7.2(-0.8)	-0.6
파견	5.4(0.6)	19.2(1.6)	69.2(-0.8)	6.4(-1.2)	-0.8
용역	1.8(-1.0)	21.7(0.6)	63.6(1.8)	12.9(-1.4)	-0.6
특수형태근로	3.1(-0.3)	24.9(-2.0)	63.8(1.4)	8.2(1.0)	0.1
가정 내 근로	25.7(12.4)	35.6(-27.9)	35.8(15.0)	2.9(0.3)	0.2
일일근로	5.5(0.0)	36.4(2.6)	54.6(-2.2)	3.5(-0.3)	-0.5
시간제 근로	30.4(0.9)	69.5(-0.7)	0.1(-0.2)	0.0(0.0)	-0.4

주 : 1)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임. 평소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평소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됨.

2) 괄호 안은 비중의 증감임. 비중 증감은 2019년 대비 2020년 비중의 변화를 나타냄. 각 연도의 비중은 각 근로형태의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려 수입을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가정 내 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증가했는데 15~39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과 40~52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가정 내 근로자는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집단과 줄어든 집단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2020년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2.9%로 매우 낮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직과 일용직 등 일자리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고용에 큰 여파가 있었던 만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표 9〉에서 근로시간의 영향을 제거한 시간당 임금을 중심으로 보면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정규직의 임금은 고용시장이 어려웠던 2020년에도 무난한 수준의 증가를 이어 갔다. 반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경우 2020년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변화가 없어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세부 형태별로 보면 시간당 임금이 가장 뚜렷하게 감소한 집단은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도 반복갱신 근로자였다. 이 집단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5.1% 감소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반복갱신 근로자는 근로시간 역시 감소하여 이들의 월평균 임금

은 전년에 비해 24만 원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들은 월평균 임금 수준이 비정규직 중 가장 높은 집단으로 고용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가 없었다면 여타 한시적 근로자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았을 집단이다. 하지만 반복갱신 근로자에서는 2020년 들어 큰 폭의 고용 감소가 있었고 특히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즉, 반복갱신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이들의 전반적인 인적자본 수준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반면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불가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여 월평균 임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자 역시 세부 형태별로 임금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일일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였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일일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 역시 감소하여 이들의 월평균 임금

〈표 9〉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및 평균 시간당 임금 수준

(단위 : 만 원, 시간, 전년동월대비)

근로형태	월평균 임금			평소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임금근로자	264.3	268.1	3.8	39.8	39.1	-0.7	1.53	1.56	0.03
정규직	316.5	323.4	6.9	43.3	42.7	-0.6	1.72	1.78	0.06
비정규직	172.9	171.1	-1.8	33.6	32.7	-0.9	1.19	1.19	0.00
한시적 근로	186.0	185.7	-0.3	35.5	34.3	-1.2	1.19	1.22	0.03
기간제	180.6	187.7	7.1	34.7	34.0	-0.7	1.19	1.24	0.05
반복갱신	244.5	220.8	-23.7	41.1	40.3	-0.8	1.37	1.30	-0.07
기대불가	146.9	148.7	1.8	34.5	32.9	-1.6	0.99	1.07	0.08
비전형 근로	185.8	185.4	-0.4	38.8	38.2	-0.6	1.13	1.13	0.00
파견	207.1	217.3	10.2	39.8	39.0	-0.8	1.19	1.26	0.07
용역	181.1	190.1	9.0	42.1	41.5	-0.6	1.01	1.08	0.07
특수형태근로	216.6	214.9	-1.7	38.9	39.0	0.1	1.31	1.27	-0.04
가정 내 근로	93.4	110.9	17.5	28.1	28.3	0.2	0.84	0.99	0.15
일일근로	164.3	160.8	-3.5	36.1	35.6	-0.5	1.07	1.05	-0.02
기간제 근로	92.7	90.3	-2.4	20.0	19.6	-0.4	1.11	1.08	-0.03

주 :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 근로시간 * 30.4 / 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3) 평소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평소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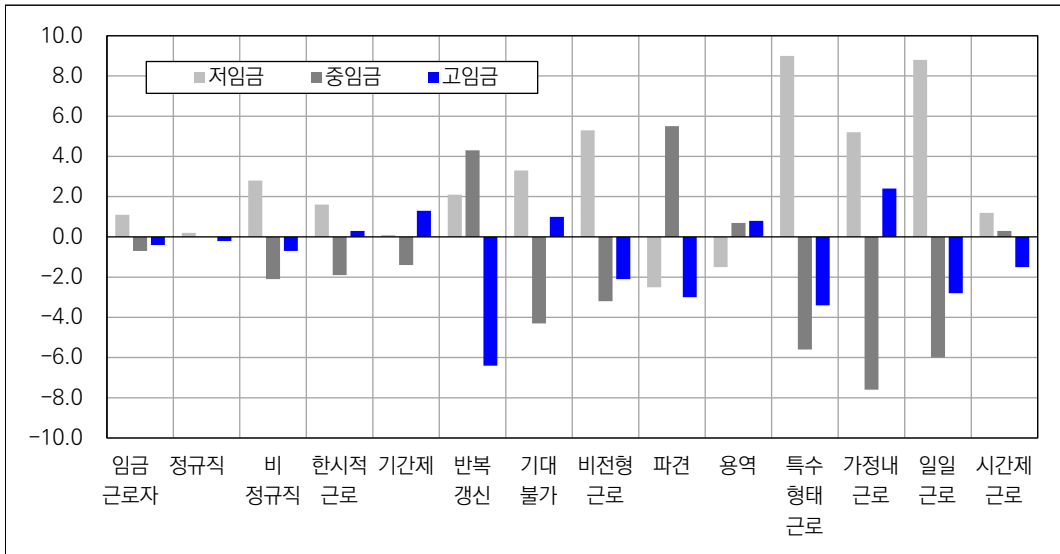
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다.

파견 및 용역 근로자와 가정 내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증가분 이상으로 상승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내에서도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파견 및 용역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이 월평균 임금을 증가시켰고 가정 내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월평균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가정 내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21%에서 39%로 증가하여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가정 내 근로로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는 임금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임금근로자를 임금 수준별로 나누어 저·중·고임금 근로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나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그림 5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정규직 내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코로나19는 비정규직에서 더 큰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림 5] 근로형태별 저임금, 중임금 및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 변화(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 근로시간 * 30.4 / 7).
 2)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3) 평소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평소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됨.
 4)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중임금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2/3 수준 이상, 3/2 수준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고임금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5) 비중 변화는 2019년 대비 2020년 비중의 증감을 나타냄. 각 연도의 비중은 각 근로형태의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정규직을 세부 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와 기대불가 근로자에서 중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저·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반복갱신 근로자에서는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저임금과 중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전형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증가한 것은 중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자와 일일근로자에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고 중·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 평균 시간당 임금의 감소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근로자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극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고학력 근로자가 가정 내 근로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V. 맺음말

2020년 8월 실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정부의 고용정책 시행으로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일부 상쇄되지만, 정책적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비정규직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인된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의 구성 변화가 크다. 기간제가 증가했지만 정부 정책의 결과로 일부 산업에 한정된 증가였으며,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인 반복갱신이 크게 감소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대불가는 증가했다. 비전형 근로 중에서는 일일근로가 증가했고, 다른 고용형태와의 중복을 제거하고 보면 시간제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셋째, 코로나19는 고용 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정규직은 53시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40~52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임금 수준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코로나19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더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세부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반복갱신 근로자에서 매우 큰 폭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특수형태근로자, 일일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에서도 소폭의 감소가 있었다. 반대로 파견 및 용역 근로자나 가정 내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겠다. **KLI**